

엠마오에서의 만찬

카라바조(Michelangelo Merisi da Caravaggio, 1571-1610),
1601, 캔버스에 유채, 141x196.2cm, 내셔널 갤러리, 런던

입당송 | 시편 66(65),1-2

온 세상이,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3,13-15,17-19

화답송 | 시편 4,2,4,7,9(◎ 7ㄷ)

◎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 저를 의롭다 하시는 하느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곤경에서 저를 구해 내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제 기도를 들으소서.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 주신다. ◎

○ 많은 이가 말하나이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 주랴?”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

○ 주님, 당신만이 저를 평안히 살게 하시니, 평화로이 자리에 누워 잠드나이다. ◎

제2독서 | 1요한 2,1-5ㄱ

복음환호송 | 루카 24,32 참조

◎ 알렐루야.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음 | 루카 24,35-48

영성체송 | 루카 24,46-47 참조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으니,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하여라. 알렐루야.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루카 24,39)



박경근 아우구스티노 신부 | 주교좌기도 사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새겨진 상처를 이야기함으로써 부활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전해주었던 지난 주일의 복음은(요한 20,19-31) 주님 부활의 육체성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복음 또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진정시키며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 주시는 모습을 전함으로써 부활하신 분의 육체성을 되새기도록 인도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성을 강조하는 복음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육체를 경시(蔑視)하고 영혼만을 중시하며 영과 육을 대립하는 것으로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육체로부터의 해방이라 여겼던 영지주의적 사고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알려줍니다. 제2독서의 말씀이 일깨우듯이 영적인 체험이나 앎을 통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라는 계명을 따름으로써(1요한 2,3-5), 곧 몸으로 믿음을 살아감으로써 구원된다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성을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들은 보여줍니다. 믿는 이들에게 영혼만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과 존재가 구원되는 것임을 일깨우는 주님 부활의 이야기들은 영과 육이 분리된 것이 아니듯이 믿음과 삶이 분리될 수 없음을 깨닫도록 인도하며, 그렇기에 하느님의 구원을 믿고 희망하는

이들은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몸으로 그 믿음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지니고 계셨다는 복음의 증언은 부활이 십자가 죽음의 열매임을 깨닫도록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거기에 새겨져 있는 상처는 부활하신 분이 곧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낮추셨던(필리 2,8 참조)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부활하신 분의 몸에 존재하는 상처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징이 됩니다. 이를 통해 복음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십자가들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듯합니다. 또, 각자가 만나는 고유한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 역시도 부활의 신비에 함께하게 된다는 것을 일깨우며 용기와 희망을 지니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곧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표징이 되었듯이 우리의 몸과 삶도 믿음과 희망을 증언하는 표징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몸으로써 믿음을 살아가며 온전한 나 자신이 되어 가는 기쁨을 통해 부활의 신비를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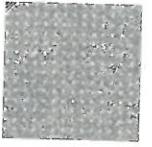


엠마오에서의 만찬

이 성화에서 식탁 위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희생 제사, 즉 성체성사와 죽음을 나타냅니다. 이 그림은 이러한 배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희생과 부활로 우리를 원죄에서 시작된 죽음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미사 안에서 진정 그분의 희생과 부활을 만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담당

성화 해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기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MBTI가 뭐예요?



이윤지마리아 | 배우

지난 한 해, 많은 사람들이 MBTI에 열광했습니다. MBTI란, 간단히 말해 사람을 16개의 유형의 성격으로 구분하는 성격유형 검사입니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흥! 나를 16가지 중 하나로 규정짓는다고? 안 해! 내가 나지 뭐!’ 하며 검사를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행 같은 바람은 쉽게 찾아들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저 역시 동참하여 서로의 MBTI를 공유하던 친구들의 단독방에 제 성격유형을 올렸습니다.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 윤지는 INFP구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아니 근데 J가 아니라 P야?” “다시 해봐. 너 솔직하게 했어?” 등등 말이죠. 친구들은 신이 났습니다. 서로 비교도 해보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올라와 있는 성격 궁합까지 들먹이며 단독방이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 MBTI의 인기가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던 지난 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쩌면 모두 두렵고 외로웠던 게 아닐까’ 싶었던 것입니다. 이 유행에는 만나지 못해도 서로를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MBTI가 물론 그 사람 전부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에 충분히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화가 날 일도 ‘나는 F(feeling: 감정 중심의 성향)인데 저 사람은 분명 T(thinking: 사고 중심의 성향)일거야!’라고 생각하며 넘기기도 하니, 나를 좀 알게 되어 살아가는 요령 하나를 터득하게 된 건 아닐까요? 어려웠던 그 시기에 저 또한 둘째를 출산하고, 첫째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가까웠던 친구와 이별하는 경험을 하며 두려운 날들을 보냈기에 팬데믹으로 고통을 겪었던 분들과 위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초등학교 입학식에 갔던 큰아이는 이

제 마스크를 벗고 학교에 갑니다. 어느 날엔가 학교에서 들었는지 제 MBTI 유형을 묻더라고요. “엄마 INFP야? 나도 그런 거 같은데!” “엄마도 네가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해!” “그럼 어떡해, 망했다!” “왜 망했어?” “우리 둘이 같으면 잘 통하겠지만, 도움을 줘야 할 때는 T도 필요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라니야, 너희 아빠가 T, 네 동생도 왕 T인 것 같아. 걱정 마!” “앗!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소울이랑 잘 안 맞는다 했어. 망했다. 히~.” 아이의 반응에 너무 웃음이 났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토록 다르게, 이토록 잘 어울리게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격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며 소중한 일상을 보내고자 합니다. 꽃 피는 봄이 되니 작은 새싹들이 너무도 귀엽고 대견하여 눈물이 핑 돌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아이들과 매일 놓치지 않고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큰아이와 제가 정말 궁금했는데 지금껏 묻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유형의 MBTI이신가요?”

한
것
교리

사람들이 생태계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니쁜 소비 습관은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미받으소서 55항



마르코와 함께 떠나는 복음 여행

왜 겁을 내느냐?

(마르 4,40)



이영제 요셉 신부 |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상대학원 교수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마르 4.35)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든 군중을 뒤로한 채 제자들은 스승님의 말씀에 따라 배를 하나 마련하여 갈릴래아 호수를 건널 준비를 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은 이미 수도 없이 이 갈릴래아 호수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았던 터라, 아마도 이들이 주축이 되어 배를 몰았을 것입니다. 한 배에 다 탈 수가 없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배에 나누어 타고 호수를 건넵니다. 그때 호수에 거센 돌풍이 일어 물이 배 안에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이 “괜찮아, 괜찮아. 종종 이런 일이 생기니 걱정하지 말게.”라고 말하며 사람들 마음을 안정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풍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점점 매섭게 불어오기 시작하고, 물은 더욱 거세게 배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점점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앞서 다른 제자들을 안심시키려 했던 어부 출신 제자들도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그들의 눈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무시고 계시는 스승님이 보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잠이나 자고 계시다니!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소리를 칩니다. “스승님, 이러다 저희 죽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걱정되지도 않으십니까!” 제자들의 아우성에 잠이 깬 예수님께서 호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잠 잡혀져라. 조용히 하여라!”(마르 4.39)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마치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돌풍은 사라지고 호

수는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마치 제자들의 두려움도 가라앉히시려는 듯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마르 4.40)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호수까지 복종하게 만드는 이분,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마르코가 전해주는 이야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한시도 제자들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서는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나면 우리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에 하느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끼며 그분의 현존을 부정하거나 그분을 떠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왜 우리를 내버려두시냐고, 걱정도 안 되냐고 그분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왜 겁을 내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나는 천주교인이오!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나는 천주교인이오. 살아도 천주교인으로 살고 죽어도 천주교인으로 죽고자 할 따름이오.” 한국 천주교회 순교성인 김성우 안토니오는 순교하며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처음에 ‘서학’(西學)이란 학문으로 전래됐지만, 차츰 신앙으로 발전하여 교회를 이룹니다. 당시 교회에 탄압과 박해와 순교가 있었지만, 교세를 잃지 않고 신앙의 씨앗은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순교’를 의미하는 ‘martyr’는 ‘증언하다, 증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순교란 하느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말씀과 삶을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결국 순교는 목숨을 바치는 것 이전에, 신앙과 신앙인의 삶을 의미합니다. 요즘 교회를 찾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일미사 참석자가 줄고, 성당에서 젊은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으며, 이후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누구도 적당한 해법을 가지지 않은 것 같고, 누군가가 제시하는 해법도 대다수는 경청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작년 제 생애 첫 안식년 때 제가 공부했던 독일에 갔었고, 그때 제 독일 지도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미 은퇴하신 지 꽤 된 노(老)사제시지만, 여전히 열정적으로 학문을 연구하시는 교수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지기 직전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의 갑작스럽고 포괄적인 질문에 교수님은 마치 미리 준비하셨던 것처럼 바로 답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가난

해져야 합니다!” 우리보다 교회의 위기를 먼저 겪었던 독일과 유럽 교회 사정을 잘 아시고, 현재 가톨릭교회의 어려움도 잘 아시는 교수님의 답변은 짧지만 명확했습니다. 지금 교회는 큰 위기를 겪고 있지만, 지난 2천 년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여유롭고, 다양하고 화려한 정신적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위기를 겪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신 예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난 2천 년 동안 교회는 가난해서 망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망해서 가난해 본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교회, 성직자와 수도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더 가난해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가난’이란 하느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성모님의 삶도 그러했으며, 순교자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느님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늘어난다면 교회를 찾는 사람도 늘고, 자신의 신앙을 삶으로 ‘증언’하고 ‘증거’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자신이 천주교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느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천주교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관장이 저에게 ‘당신이 천주교인이오?’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소, 나는 천주교인이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 우리 종교는 하느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또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오.”(1846년 8월 26일 김대건 신부가 페레올 주교에게 쓴 옥중 편지의 일부)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엠마오 소풍



정지원 바오로 신부 | 살레시오회(돈보스코 심리발달연구센터)

최근 상담을 종결한 중학생 윤성(가명)이는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주호소문제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욱하며 대들고, 어머니를 무시하고, 동생을 마구 때렸습니다. 소위 '분노 조절 장애'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종합심리검사와 상담을 의뢰하시며, 이왕이면 상담사가 '남자'였으면 더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본인 생각이지만, 아들의 모든 문제는 아버지 때문인 것 같으면서 좋은 남자 어른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합심리검사 해석상담을 하면서 만나본 윤성에게는 어머니의 말씀과는 달리 사뭇 진지하고 바른 모습도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였고, 아주 바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윤성이와 친해지기 위해 농담을 섞어가며 일상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성이가 저와의 관계를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리포형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윤성도 그간의 불편하고 힘들었던 상황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성이의 말을 귀담아들으며, 당시 겪었을 심정에 공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시에 일련의 상황들 안에서 윤성이가 했던 노력이나 그 아이의 좋은 부분들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찾아내어 지지하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윤성이는 '와우!' 하고 탄성을 지르기도 하고 제가 쳐주는 박수를 따라 치곤 하였습니다. 이후엔 가족의 입장에서 상황을 볼 수 있게 도우며,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일지 함께 찾았습니다. 윤성이

는 욱설과 큰소리, 체벌을 멈춘 아버지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고, 어머니를 예전보다 더 존중해 드리며, 동생은 적어도 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은 발달단계상,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뇌의 기관들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감정과 관련된 편도체와 주의 집중, 상황 판단 등을 관장하는 전두엽 등이 발달하는 과정에 있기에 뇌가 완전히 성숙한 성인에 비해 감정을 다루고 조절하는데 능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만날 때, 특히 감정을 다룰 때는 이 점을 유념하고, 여유와 인내를 가지고 하나씩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합니다. 무조건 청소년들의 그런 충동적인 행동과 감정들에 휩쓸리거나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어머니가 부탁하신 것처럼 좋은 어른 모델이 되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반하시며 보여주시는 모습에서도 좋은 어른의 표양을 발견합니다. 요 며칠 그들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성경 해석을 통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함께 하고파 하는 바람을 물리치지 않고 먹을 것을 나누기까지 하시며, 정서적, 신체적 돌봄을 다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정서적 부활을 돕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도서 '안나 카레니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안나와 레빈



김우선 데니스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유명한 첫 문장입니다. 이 소설은 인생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행복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주는 소설입니다. 소설의 역할이 일차적으로 사상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작품 속 인물들의 이야기, 감정과 갈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독자가 공감하고 카타르시스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 소설은 탁월합니다.

이 소설을 읽는, 단순하지만 부정확하지 않은 한 가지 방법은 안나와 레빈을 대비해 보는 것입니다. 안나는 도시의 귀족 사회라는 공간에서 불륜과 죽음에 이르는 길을 걷게 되고, 이상주의적 지주인 레빈은 농촌에서 가족과 행복, 신앙을 향한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레빈이라는 인물 안에 톨스토이는 자신의 모습을 투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레빈을 미화하지 않으며 안나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거두지도 않습니다.

나이 들어 이 소설을 읽으며 톨스토이의 인간과 인생에 대한 통찰과 묘사, 문장력에 감탄을 거듭 했습니다. 특히 한 부분에서는 멈추어 한참 음미를 했습니다. 그것은 레빈과 키티의 결혼 장면입니다. 신앙 없이 살았던 레빈은 정교회 미사 안에서 결혼을 합니다. 미사 중 사제의 기도를 듣던 레빈은 깜짝 놀랍니다. 기도 속에 반복되는 ‘도와주소서.’라는 말이 자신의 마음을 두드렸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소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

게 알아챈 것일까.” 결혼을 앞두고 레빈은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고 느꼈고, 어떤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 그렇다. 지금의 나에게도 도움이야말로 가장 절실한 것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약함과 이중성을 넘어서 사랑이 한 뼉 자라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한계를 넘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톨스토이는 케빈의 입을 빌어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후 저는 혼배미사 강론에서 이 장면을 자주 인용합니다.

첫 문장만큼 주목받지 못하지만 소설의 끝맺음도 좋아합니다. 소설은 안나의 자살로 끝맺지 않습니다. 대신 농촌에서 레빈의 가정 이야기가 한참 이어지다가 레빈의 독백으로 마칩니다. 그는 여러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함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부에게 화를 내고, 재치 없이 말하고, 자신의 공포 때문에 아내를 꾸짖고 그리곤 후회할 것이라고. 그렇지만 “나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이성으로는 알지 못하면서 기도할 것이다.” “이제부터 내 생활은, 내 생활 전부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과는 무관하게 한 순간 한 순간 예전처럼 절대로 무의미 하지 않을 것이며, 틀림없이 선의 의미를 지녀 그것을 내 생활에 부여할 것이다.”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쓴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말하듯, 그가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인생에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초월할 수 있게 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말 아닐까요?

2024년 성소 주일 행사

성소 주일을 맞이하여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0,21)를 주제로 4월 21일(주일) 오전 10시~오후 4시,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혜화동)에서 성소주일 행사가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없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성 중교등학교 운동장 주차 불가)

대상: 모든 신자(전체 개방) / 준비물: 도시락, 물, 돗자리

시작	· 신학교 개방	10시
성소주일 미사	· 집전: 구요비 주교 외 사제단	11시 대운동장 야외제대
기념행사	· 신학생 프로그램 부스	12시30분~14시30분
	· 신학생 음식 부스	낙산마루 및 대성당
공연	· UNITAS	12시30분~14시30분 낙산마루
마침	· 폐회사 및 마침 강복	16시

4월 20일(토)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cc.catholic.or.kr)-교회 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4년 4월 20일 안학만 루카 신부(56세)
- 1996년 4월 19일 신인균 요셉 신부(91세)
- 2003년 4월 18일 한희동 그레고리오 신부(68세)
- 2008년 4월 21일 류영도 디오니시오 신부(83세)

서울주보 게재 신청 안내

서울주보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교구청 알림

시복시성 기원미사(197회)

이 달의 하느님의 중 '심원경 스테파노'
때: 매월 셋째주(화) 4월16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2024 성경통독 아카데미

강의: 조창수 신부 / 내용: 신구약 성경 전체
때: 매주(월·화) 13시~15시, 월요일 성경 온라인 라이브 동시 강의 / 회비: 12만원(연회비)
곳: (월) 가톨릭회관 3층, (화) 예수회센터 106호
문의: 010-8889-5425(문자) 성경통독 아카데미

한국교회사연구소와 함께하는 생명살림강좌

주제: 밥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대상: 관심있는 모든 신자, 우리농 활동가 및 회원
내용: 초기 교회 선교사의 편지와 기록으로 보는 밥상이야기 외 우리 음식문화 2강좌, 미사 때, 곳: 5월16일(목)·23일(목)·30일(목) 매주(목) 10시~12시(3주간), 서울대교구 교구청 501호
회비: 3만원(우리은행 1005-502-895550 천주교서울대교구우리농본부) / 접수: 5월10일(금)까지 마감문의(신청): 02)727-2275, 2277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www.wm.or.kr) 참조

'슬픔 속 희망찾기' 자살유가족 프로그램 안내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1) 4월 유가족 월례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 집전: 장인우 신부
때, 곳: 4월20일 매월 세번째(토) 10시(목주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2) 초기 자살유가족 집단상담 실시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 접수방법: 홈페이지, 전화접수
총진행일정: 5월2일~30일 매주(목) 10시~13시(총 5회) 모집인원: 15명 / 신청마감: 4월25일(신청인원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곳: 가톨릭회관 1층 소회의실 / 강사: 황순찬 교수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이론연구소 17회 회원전: 전관
전시일정: 4월10일(수)~18일(목)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내 마음의 북녘 본당’ 미사)
때, 곳: 1414차 미사 4월16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주 기억할 본당: 서울대교구 장련 본당, 매화동 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 2024년 영성심리아카데미
교육명: 기도를 시로 쓰기, 우리의 마음건강을 위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하는 법, 영적글쓰기, 뮤지컬, 현대미술-신앙을 말하다, 자존감 되찾기(문종원 신부), 내 안의 창조적 에너지 되찾기 등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 / 문의: 02)727-2126
-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 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2024·봄'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 문의: 02)727-2047
1) 신앙, 인문학을 만나다

교회사	4월25일~5월9일(목) 19시30분~21시
신학	5월16일~30일(목) 19시30분~21시

2) 문화 강좌

나만의 부활 십자가 만들기(목공예)	4월25일~5월16일(목) 19시~21시
생활 악기 성가 합주반(노반)	4월25일~5월30일(목) 16시~18시
칼럼바 & 에그리타 성가 연주기초반	4월25일~5월30일(목) 19시~21시
우쿨렐레 성가 연주기초반	4월25일~5월30일(목) 19시~21시
초보를 위한 디지털 펜 드로잉(노반)	5월22일~6월19일(수) 15시~17시
바크렐 콜럼으로 그리는 십자의 길(노반)	5월22일~6월19일(수) 19시~21시

한국교회사연구소 2024년 1차 성지순례

순례지: 경남 거제, 복자 유향검 딸 유섬이 묘, 복자 윤봉문 요셉성지, 해금강, 외도 보타니아
때: 4월29일(월)~30일(화) 1박2일 / 참가비: 25만원
출발: 4월29일(월) 7시30분, 명동성당 정문
계좌: 국민은행 844402-04-171823 천강우(교회사동인회) / 입금 후 연락주세요
문의: 010-8757-7639 간사 정신영

2024 상반기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 교육생 모집

사목국 노인사목팀에서는 손자녀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혹은 예비 조부모)들이 '신앙의 전수자로서 가톨릭 신앙을 올바르게 전수할 수 있도록 돕는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대상 및 인원: 손자녀를 둔 50세 이상의 조부모 혹은 예비 조부모, 50명(선착순 마감)
교육과목: 신앙전수법 / 신청기간: 4월30일(화)까지 접수
때, 곳: 5월14일(화)~6월18일(화) 10시30분~12시30분(총 6주), 영성센터 B203호(구 계성여고)
신청방법: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교육신청 게시판 접수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 02)727-2385, 2386 / 회비: 8만원
자세한 내용은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참조

환경사목위원회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1) 제6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때, 곳: 4월18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주례 및 강론: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2) 제50회 가톨릭 에코포럼
대상: 관심있는 일반신자, 신학생, 수도자, 성직자
주제: '우주 진화사와 『찬미받으소서』(이경규 박사, 생태영성연구소 연구위원, 생태심리학)
때, 곳: 4월24일(수) 19시~2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신청방법: 이메일(ecccatholic@hanmail.net) 접수 / 회비 없음
3) 2024년 태양광 발전소 설치 설명회
대상: 태양광 발전기 설치에 관심 있는 본당 및 신자, 태양광 발전기 설치 사업자 / 회비 없음
내용: 2024년 태양광 발전소 설치 설명(한국에너지공단), 설치 사례발표(노들담 생태영성의 집, 구파발성당, 주택옥상), 대전지역 태양광 협동조합 사례, 질의응답
때, 곳: 4월25일(목) 14시~16시, 가톨릭회관 205-2호 강당(명동)

인문단체 알림

모임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소주일 행사
 때, 곳: 4월21일 10시, 성북동 수도원(선잠로 9-6)
 문의(접수): 010-8573-0567

이혼 아픔 회복을 위한 비긴어겐 피정 2차
 때, 곳: 4월20일(토)~21일(일), 마리스타 교육관(합정동)
 문의: 02)3789-2586 ICPE 선교회

13지구 성령기도회(중앙동성당) / 문의: 010-8259-7680
 강사: 최황진 신부 / 강의·미사·안수
 때, 곳: 4월16일(화) 13시~16시, 관악구 은천로 174

성모발현지 성지순례
 때: 6월12일(수)~24일(월) 12박13일 / 선착순 접수
 곳: 스페인·루르드·파티마 / 회비: 550만원
 문의(접수): 010-5391-0229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낙태 후 화해 피정(착한목자수녀회)
 때: 4월19일(금)~21일(일), 5월17일(금)~19일(일)
 곳: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인천) / 회비 없음
 문의: 010-6637-1366 바울라 수녀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매주(화) 4월16일 12시30분~16시
 곳: 가톨릭회관 7층 / 성시간, 연도, 위령미사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도미니코 봉쇄수도원 1박2일 젊은이 피정
 대상: 35세 미만 미혼 남녀 / www.dominicocorea.com
 때: 5월18일(토) 14시~19일(일) 14시30분 / 회비: 7만원
 문의(접수): 043)651-2906, 010-6561-2906

정동 청년 도보성지순례(작은형제회 한국관구)
 대상: 만 49세 이하 청년 누구나 / 회비: 3만원
 때, 곳: 5월11일, 솔피-신리성지(버그내순례길)
 문의: 010-9967-1590 / 인스타그램: fecbible

반뇌 성모성지순례 참가자 모집(국악성가연구소)
 때: 4월22일~5월1일(9박10일) / 문의: 010-2279-0255
 순례지: 반뇌-스위스-오스트리아
 인솔: 강수근 신부(국악성가연구소)

소록도 피아골 피정 / 문의: 010-3712-8119

소록도	5월24일~25일	피아골	6월21일~22일
대구교구	5월16일~17일	제주	6월26일~29일
북해도	6월2일~7일	아키타순례	9월2일~6일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26차	5월17일(금)~25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127차	6월14일(금)~22일(토)	
제128차	7월19일(금)~27일(토)	

평화의 모후 청년 쉼 모임(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대상: 미혼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6호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금요철야기도회
 강사: 맹진화 신부 / 울동, 찬양, 고해성사
 때, 곳: 4월19일 18시~22시(미사 21시),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버스 500·504·643·651 환승
 천주교성령봉사회 정류장 하차 / 문의: 02)867-7900

교구 순례·성베네딕도왜관(신축) 수도원 전례
 때: 5월4일~7일·7월13일~16일(수도원·부산 8곳·마산 6곳), 6월15일~18일(수도원·대구 17곳), 6월28일~30일(원주 7곳·청주 5곳·안동 7곳)
 출발: 가톨릭회관(명동) 후문 /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돌(왜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제주 평화의 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강우일 주교와 함께 걷고 듣는 제주 이야기
 대상: 개인, 단체(구반장 맞춤 피정 환영)
 때: 5월23일~25일(성모의 밤)·6월19일~21일·10월2일~4일·11월1일~3일·11월15일~17일
 곳: 성 이시돌 피정의 집(한국통합사목센터-주최)
 문의: 010-9670-9775, 010-2231-2074

2024년 마리아 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대피정
 주제: 예수 그리스도 홀로 구원자이시다.(예시지 596번)
 미사: 구요비 주교(서울대교구 주교)와 마리아사제운동 사제단 / 강의: 양창우 신부(성골분반외방선교회)
 때, 곳: 5월5일(일) 9시~17시, 동성고등학교 대강당(혜화동) / 문의: 02)470-5851, 010-3136-7869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마리아사제운동(M.S.M)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쉽고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4년 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5월2일~4일·5월6일~8일·5월17일~19일·5월22일~24일·5월26일~29일(차주도)·6월21일~23일·7월12일~14일, 우도해변 포함 7월20일~22일·7월25일~28일·8월1일~4일, 제주성지순례 6월16일~18일·7월1일~3일
 문의(접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자연 피정

자연순례	5월14일~16일, 5월27일~29일, 6월10일~12일, 6월22일~24일, 7월19일~21일, 8월21일~23일, 9월1일~3일
성지순례	5월2일~5일, 5월8일~11일, 5월19일~22일, 6월3일~6일, 6월15일~18일, 9월7일~10일, 10월7일~10일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5월11일(토)~12일(일), 6월8일(토)~9일(일)
3박4일	6월27일(목)~30일(일) 4박5일 5월27일(월)~31일(금)
8박9일	4월15일(월)~23일(화), 5월1일(수)~9일(목)
40일	10월4일(금)~11월12일(화)

교육

성가발성 노래교실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미나음악원(주최, 신촌)
 문의: 010-9842-8818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새천년복음화학교 150기 개강
 때, 곳: 4월24일(수) 14시·5월2일(목) 10시, 가톨릭회관 5층 복음화학교 교실 / 회비: 7만원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노들담 말씀의 씨앗(복음서통독)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선착순 10명
 때: 5월1일~7월3일 매주(수) 19시30분(총 10회)
 곳: 노들담교육관(북촌로54) / 문의: 010-3930-6730

이론 수강생 모집(입문반·중급반·실기)
 때: 4월4일~6월6일 매주(목) 10시~13시(10회)
 곳: 과달루페 외방 선교회(주최) 서울 분원
 문의(접수): 010-8618-3451 송석철 교수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월)·(화)·(수)·(금)·(토) 13시30분
 곳: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가톨릭성서모임 독서클럽 / 문의: 02)824-4363
 도서 제목: 미치고 흐느끼고 견디고(신달자 묵상집)-문학사상, 2023년 / 접수: biblemove.com
 저자와 나누는 삶에 대한 묵상 / 강사: 신달자(사인)

바로로말 '영화 속 행복찾기' 60대 시니어 모집(기초반)
 주제: 자아성장과 신앙성숙 위한 힐링 무비 / 선착순 8명
 때, 곳: 4월26일부터 매월 둘째·넷째주 (금) 13시30분~17시30분(총8회), 가톨릭회관 바로로말 / 회비: 18만원
 문의(접수): 010-2928-8274 이 벨라벳다 수녀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스페인어·이태리어 강좌
 5월~6월 봄학기(II) 수강생 모집
 개강: 5월7일(화)~8일(수) 강좌별로 상이함
 주2회(문법·회화) 총 30시간, 8주 / 회비: 32만원
 왕초보~고급반 단계별 맞춤형 교육
 문의: 02)705-8718(http://sccc.sogang.ac.kr)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수업참여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수업내용: 검정고시·수능, 기타, 원어민영어회화, 토론·글쓰기, 사진, 한국사능력검정, 바리스타, 코딩 / 봉사자모집: 검정고시(수학·과학), 수능학습지도 가능한 분
 문의: 02)382-5652 청소년문화공간JU

해외가톨릭사립학교 정규입학·캠프모집
 문의(예약):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 레지오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정규입학	초5~고2 / 미국·아일랜드(6개월 이상)
여름캠프	초3~중2 / 시카고, 더블린, 보스턴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4년 후기(주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4월22일(월)~5월2일(목)-전형일 5월18일(토) / 홈페이지: <http://gsot.sogang.ac.kr>
 문의: 02)705-8668 / 영성·철학상담: 철학을 중심으로 신학, 사회복지학 세 전공의 협동과정임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박사	신학(교의·조직 / 영성), 가톨릭사회복지학(실천·정책·행정), 영성·철학상담

모집

우니빠체 합창단원 모집
 오디션: 4월16일(화) 19시30분, 지축동 요한 성당 (전철 3호선 삼송역) / 자유곡
 지휘자: 한동일 / 문의: 010-4008-8640 총무

무지카사크라서를 합창단 단원 모집
 르네상스 시대 무반주 다성음악 전문 무지카사 크라서를 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만 55세 미만 남녀 교우 / 지휘: 신기호 신부
 문의: 010-9464-0680 단장 / www.musicasacra.kr

미사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4월18일(목) 오전 10시, 사당5동성당

살레시오회 미사·피정 / 문의: 02)828-3522
 1) 살레시오와 꿈 미사
 때, 곳: 매주(월) 11시, 살레시오회 관구관 4층
 2) 반장·구역장·레지오 단원 1일 피정
 때, 곳: 수시, 살레시오회 관구관 교육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열린미사 / 문의: 02)953-0613
 주제: 권태문 신부(골롬반회) / 떼제기도, 미사
 모임: 담당 곤잘로 신부(성소자,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때, 곳: 4월20일(토) 16시, 골롬반 선교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 누구나 참석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레미사 Ester 특별강연
 내용: 특강,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때: 4월15일(월) 14시~17시 / 강사: 김연준 신부
 곳: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서울고속버스터미널(준)성당 미사 / 문의: 02)535-6604
 곳: 서울 고속터미널 경부선 10층(옥상공원 남산방향)

(화~금)	12시	(일)	11시·17시·21시
(토)	13시30분(토요 주일 미사)		

안내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영성 / 컷희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성클라라봉쇄수도원은 재건축이 불가피하여 수도원을 철거했고 곧 공사를 시작합니다 도움을 겸손히 요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주 1회)
 문의: 010-6355-9782 박 레지나(상담자)

성바로수도회 레벤복스 북독크에 초대합니다
 때, 곳: 5월18일(토) 14시, 성바로수도회 본원 (미아동) / 문의: 010-2557-1361
 강사: 정석 교수 / 주제: 레벤복스 신간 '행복@로컬-정석의 하동·목포·전주·강릉 한달살이 이야기'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 문의: 031)810-9200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중점치료(도박·인터넷 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홈페이지: www.karf.co.kr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분양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천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목 순교성지, 서깃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문의·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ac.or.kr)

전진상 교육관
 곳: 명동 / 문의: 02)726-0700(www.ijscen.or.kr)
 몸으로 떠나는 영적여행 5월10일부터 매주(금) 10시~12시(7주)
 마음돌봄 피정 5월11일(토) 15시~12일(일) 15시

유관단체 알림

떼제노래 작은 피정·주일 미사 / 문의: 02)744-0840
 대상: 히느님을 갈망하는 모든 이, 청소년·청년 환영
 때, 곳: 매일 세번째(토) 4월20일·5월18일·6월15일 16시~17시45분, 햇살사목센터(주최, 혜화로2길20) 성당

직원모집

강화꽃등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7171-9503
 요양보호사 / 주40시간, 기숙사 가능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모집분야: 편집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공지 사항 반드시 참조 / 이메일(hr1886@catholicbook.kr)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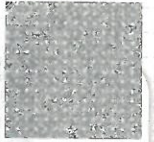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마음자리(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직원 모집 / 문의: 02)2691-4365
 분야: 사회복지사(계약직 1명)
 마음자리 홈페이지(www.maumjary.com) 채용 공지사항 참조 / 이메일(momjari@naver.com) 접수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경찰사목위원회 직원 모집
 업무: 경찰교우 대상 교육·행사 준비, 진행 및 홍보·사무행정 / 계약직(육아휴직 대체)
 대상: 견진 받은 교우, 사무행정 업무 가능자
 기간: 5월1일~2025년 9월30일(17개월)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4월16일(화) 18시까지 이메일(catholicpolice1@seoul.catholic.kr) 접수 / 문의: 02)742-9471, 3

삼성동성당 주방근무자 모집 / 문의: 02)512-0195
 분야: 사제관 주방 근무자 1명(계약직)
 대상: 세례받은 분으로 성실하고 건강하신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채용시까지 사무실 방문·우편(우 04909,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12길 68 삼성동성당 사무실) 및 이메일(anselmusmoon@seoul.catholic.kr) 접수
 서류 심사 후 면접(합격자 개별 연락)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호준 신부
성심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수시	수녀원(서울)	02)941-4139, 010-8563-6875
예수회	수시	성소실(마포구 신수동)	010-8332-8729
작은예수수도회	수시	수도원(군자동)	010-8920-2111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4월20일(토) 15시	성북동 수도원(선잠로 9-6)	010-8573-0567
천주교서울교구제천교회	수시	선교회	010-2749-4596, 02)749-4596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4월20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해미

류은경 지음
흐름출판사 | 236쪽 | 1만5천원
문의: 063)287-1231

신앙을 지키려면 목숨을 포기해야 했던 시절의 순교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믿음을 선택했을까? 이 책은 병인박해 때 산 채로 구덩이에 묻혀 치명한 무명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사제직에 대해 고민하는 주인공의 사연을 통해 풀어 나가는 소설이다.



신간
궁금해요, 기도!

인만희 지음
바오로딸 | 224쪽 | 1만2천원
문의: 02)944-0944

일선에서 오랫동안 피정 지도를 해온 저자는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 얻은 영적 통찰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법한 기도에 관한 질문과 고민을 모아 단순하고 명쾌하게 풀어준다.



신간
반항 천사와
충실 천사
죄가 뭐예요?

바르바라 바페티 지음
생활성서사 | 36쪽 | 1만원
문의: 02)945-5987

이 책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가르쳐 준다. 꼭 알아야 할 '죄'에 대한 교리를 알차게 알려 주면서도 분량이 많지 않아 아이에게 부담 없이 건넬 수 있다. 전 광주 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님께서 번역하신 이 책은 어린이들이 신앙 도서와 친숙해지도록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신간
삶을
변화시키는
선포

파비오 차르디, 레나타 시몬 엮음
도서출판 벽난로 | 404쪽 | 1만5천원
문의: 02)572-1943

이 책은 포콜라레 운동의 창설자 끼아라 루빅이 남긴 글들에서 발췌하여 엮은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삶이 교회의 성찰을 요청하고 있는 시노드적 여정에 동참하는 것이며, 오늘날 교회가 걸어가는 걸음과 함께하는 것임을 말해 준다.



선교특독
바이블 테라피

때: 6월 14일(금) 14시~15시 / 참가비: 5천원
곳: 한국외방선교회 본부 대성당(성북동)
(계좌: 하나은행 286-910010-39104 재단법인천주교외방선교회)
문의(문자 신청): 010-2730-3673



온라인 신청 큐알(QR)

'선교특독'은 주님의 소명에 따라 자신의 삶을 선교에 봉헌하고 계신 분들을 초대하여 선교하는 삶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한다. 이번 만남은 이인옥 작가와 함께하는 '바이블 테라피'로 성경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치유와 정화에 초점을 두고 삶의 의미를 풀어본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춘희

입장권: SUITE석 17만원, VIP석 15만원, R석 12만원, S석 10만원, A석 8만원, B석 5만원
문의(예약): 02)399-1054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참조시 주보 1부로 20명 30% 할인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 쿠폰코드 'LTR신자할인' 입력)



'LTR신자할인' 쿠폰사용법 큐알(QR)

서울시오페라단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올리는 2024년 첫 작품. 강력한 드라마와 아름다운 음악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베르디가 만든 최고의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작품을 오페라의 본 고장인 유럽에서 인정받는 국내 최고의 성악가들이 감동깊게 꾸밀 것이다.



제2시대문·마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언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부주임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법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미소짓고, 인사하고, 청첩하지요!”

◎ 백종원 마르코 부주임신부 영명축일 축하식

일시 : 4월 21일(주일) 11시 교중미사
※ 신부님께 하느님의 은총이 늘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전 9시, 11시 미사 후 전신자 음식나눔잔치가
있습니다.

◎ 세례식 : 4월 28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10명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축복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절연습 : 4월 27일(토) 오후 6시 미사 후
※ 예절연습에 대부모님과 함께 참석 바랍니다.

◎ 여성구반장회합 : 4월 14일(주일) 12시/소성전

◎ 성소후원회 미사
일시 : 4월 16일(화) 오전 10시
※ 성소후원회 미사 30분 전부터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 10시미사 후 201호에서 회합이 있습니다.

◎ 성소 주일 행사 관계로 4월 20일(토)
오후 3시 어린이 미사는 없습니다.

◎ 성소주일 신학교 방문
일시 : 4월 21일(주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성당에서 8시 30분에 출발)
신청 : ~4월 16일(화)까지 사무실
문의 : 모니카 단장 (010-2271-0565)
※ 신학교에서 11시미사를 드리며 준비물은 없습니다.

◎ 병자영성체
일시 : 4월 26일(금) 오전 10시 출발

◎ 남성울트레아
일시 : 4월 21일(주일) 11시 교중미사 후 301호

◎ 여성울트레아
일시 : 4월 23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남성 요리대회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함께해주신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청년 봄 피정
일시 : 4월 27일(토)~28일(주일)
대상 : 청년 누구나
장소 : 복자사랑 피정의 집
신청기간 : ~ 4월 14일(주일)
참가비 : 45,000원 / 카카오 7979-88-91578
문의 : 비아 연합회장 (010-2550-2375)



◎ 청년 레지오 셋별Pr. 단원 모집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님을 따라 함께 더욱 더
행동하고 기도드릴 청년 단원을 기다립니다.
회합 : 매 주일 오후 4시 30분 / 206호
문의 : 안토니오 단장



◎ 교무금 책정 현황 (2024. 4. 7)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3년 책정율	2023년 납부율
1,997	663 (33.2%)	620 (31.1%)	43.7%	42.3%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감사헌금 (4월 1일~7일)

곽선모	오천원	송명진	일십만원
문지원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오만원
김재균	오만원	김은순	오만원
김양훈	일십만원	김선녀	오만원
권정자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부활 제2주일)

교 무 금	11,781,000원
주 일 헌 금	6,029,000원

입당	129	봉헌	511,220,342	성체	540,167,173	파견	130
----	-----	----	-------------	----	-------------	----	-----



주님 저희 위 - 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